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1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02호 1판 2010년 2월 18일 목요일

거침없다 영코리안

〈Young Korean〉

모태범 이어 이상화도 빙속 500m 금빛 질주

관련기사·화보 7·12·18면

모태범(21·한국체대)에 이은 이상화(21·한국체대)의 '금빛질주'. 한국 남녀선수가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빙속 500m 동반 우승의 대기록을 세우며 세계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쓴 쾌거였다.

이 같은 한국 스포츠의 도약은 세계 체육계가 깜짝 놀란 '대사건'이었고, 나아가 '한국 젊은이들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짜릿한 순간이었다.

세종시 논란과 실업난으로 갑갑증에 걸린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낭보이기도 했다. AP, AFP, 로이터, 신화, DPA, 블룸버그 등 각국 주요 통신사들은 '서프라이즈(이변)'를 연발하며 긴급 타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한국 빙속의 성공에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 고된 훈련이 보상받았다'고 전했다.

즐기면서 이기는 자신만만 세대
박태환·김연아 이은 '신화 창조'

하지만, 태극전사들의 금빛 투혼은 결코 '이변'이나 '행운'이 아니었다. 한국인 특유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끝없는 도전정신과 체격의 격차를 극복한 체력과 기술훈련,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 등 3박자가 어우러진 '준비된 우승'이었다.

◇**자신감 있는 도전**=우승이 확정되자 이상화는 양손을 들어 손뼉을 쳤고, 모태범은 태극기를 두르고 깜찍한 춤을 추는 여유있는 세리머니를 보였다. 시상대에 오른 이정수와 이승훈은 메달을 깨물며 익살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신감으로 세계적인 선수들과 주눅 들지않은 승부를 펼쳤다는 당당함이었다. 스릴 넘치는 큰 승부에서 위축되지 않고 경기를 즐겼던 것이 금메달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또한, 그간 미국·유럽의 독무대였던 수영과 피겨에서 박태환과 김연아의 성공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세계무대에 더는 성역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얘기다.

◇**체계적인 훈련**=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는 육상 단거리와 비교될 만큼 순발력과 파워가 필요한 종목이다. 더욱이 동양인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승을 노리기가 쉽지않은 종목이었다. 하지만, 고강도의 체력훈련과 통계에 의한 선수별 맞춤형 훈련으로 경기력의 열세를 극복해 온 것이다.

모태범이나 이상화 모두 막판까지 뒤지지않는 뒷심을 발휘 한 것도 체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코너를 도는 곡선주로에서도 서양선수들에게 뒤지지않는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세계 정상권에 있는 쇼트트랙의 기술을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빙속에 도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쇼트트랙에서 빙속으로 전환한 이승훈이 예상을 깨고 은메달을 획득한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비인기 종목이었던 빙상은 선수층이 얇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 정예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다양한 국제대회를 통해 실전경험을 쌓고 선진기술도 습득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 또한, 동서양 스포츠 과학 정보교류도 활성화되면서 과학적인 트레이닝기법도 도입하는 등 전력 차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아온 것도 큰 힘이 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 연구원 최규정 스포츠과학연구실장은 "이제는 종목별 근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선수들에게도 일률적인 훈련이 아닌 개인에게 맞는 훈련으로 최상의 전력을 발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적인 훈련체계 속에서 여유를 갖고 승부를 즐기는 태극전사들의 승전보가 남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기자 sw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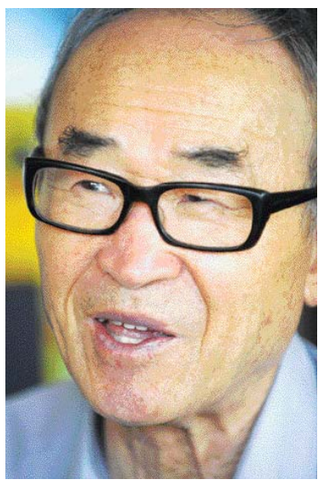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속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가 16일 플라워 세레모니 시상대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1탄
탈리아.V 교수 '뉴욕속의 한국미술' ※ 선착순 100명·무료
내일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5·18 민초, 만인보 마지막 주인공"

25년 대작업 마무리 민족시인 고은 ▶인터뷰 3면



"올해는 5·18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갈수록 '5·18 정신'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달 말 완간되는'만인보'는 5·18 당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때마침 '만인보'가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주제로 채택된 만큼 5·18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로 쓰는 민족의 호적부'라고 불리는 '만인보'(萬人譜) 완간을 앞둔 고은(77)시인은 16일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광주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만인보'가 5·18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 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8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로 '만인보'(10,000 Lives)가 채택된 데 대해 그는 "인간의 본성, 인류애를 담겠다는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miliano Gioni·38) 감독의 의지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내 작품 '만인보'의 취지와도 맞는 것 같아 흔쾌히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고은 시인은 "이달 말 출간될 27~30권은 애초 기획했던 대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등 수많은 민중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며 "5월 민초들로 25년에 걸친 '만인보' 작업이 완결됐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고 시인은 "'만인보' 완결판을 들고 조만간 광주를 찾겠다" 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념강연 등 5·18 30주년 행사에도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성=김대성기자 bigkim@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민주 시·도지사 경선 4월 초순으로 늦어질 듯

전남지사 결선투표 없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는 도입되지 않는다.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 경선 시기는 당초 3월말에서 4월 초순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6·2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국민경선에서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천 시행세칙안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지방선거 기획본부가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한 국민참여경선(당원 50%+유권자 50%) 시행세칙은 여론조사 방식과 선거인단 방식을 각각 도입하거나 복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최종 득표율이나 득표수가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경선이 유력시 되는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 시기도 4월 초순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소한 1~2차례 정도의 TV 및 신문 토론회를 해야 하는데, 토론회가 선거법 60일 이전인 4월 2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4월10일을 전후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0일, 전남도당은 이달 말까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공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경력
광주지방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변호사 김관재 올림
법무개시 : 2010. 2. 9.
법무장소 : 광주 동구 지산동 [illegible] 동신빌딩 [illegible]호
대표전화 : (062) 229-5001 팩스 (062) 269-0004
개업소연 : 2010. 2. 26.(금) 15:00부터